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의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진해제단 이영자 총재 초청예배

## “만민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씨과일이 되자”

진해제단(책임승사 이창선)은 4월 30일 승리제단 이영자 총재를 초청하여 예배를 보았다.

2시에 진행된 1부예배에서 구세주께서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1부예배를 마친 후 진해제단 식구들은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구세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로 믿는 우리 마음’ ‘주님이 거느리시니’라는 찬송을 불렀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영자 총재 말씀 시간에 이 총재는 먼저 “누구든지 내 몸처럼”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은 자유율법의 알파와 오메가로서 모든 율법의 처음이자 종착역이므로 승리제단 교인들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으로 표현되는 자유율법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석과불식(碩果不食)이란 말처럼 구세주 이긴자의 씨과일로 완성되자

이 총재는 “천지공사의 핵심은 ‘이긴자 구세주’를 키워내는 ‘지식농사’이므로 씨과일인 이긴자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걸으셨던 연단의 발자취를 따라 당신의 성품과 유전형질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긴자 구세주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요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를 내 몸처럼 100% 섬길 수 있느냐에 따라 왕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올해는 꼭 변화를 입자”고 마무리하였다.

진해제단 이창선 책임승사는 예배 후



이영자 총재가 진해제단 성도들에게 힘 주는 말씀을 하고 있다

광고 시간에서 “총재님의 말씀은 우리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서 마음의 양식과 영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 이영자 총재 말씀 요약

구세주는 보광하시기 전에는 분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자식들이 승리제단을 통해 구세주 이긴자로 거듭날 수 있는 천지공사의 안전한 토대를 마련하셨다. 공산주의자 속에 들어가 공산주의를 몰락시켰으며, 마귀의 잔혹한 공격에 무죄판결을 이끌어내 세계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의 기반을 마련하셨다.

그후 보광이라는 변신의 역사를 통해 이긴자 구세주로 완성시키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신의 묘수를 쓰셨다. 보광은 마귀의 눈을 피하고 속여 승리제단 성도들을 이긴자 구세주로 완성시키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었다. 보광전의 우리들은 구세주의 나팔수였다면 보광후의 우리들은 씨과일은 먹지 않는다는 석과불식(碩果不食)처럼 씨과일이 되는 것이다.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아 지금 승리제단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무한한 생명력을 감추고 있는 씨과일이다. 인공지는 자동차가 출시된 것처럼 우리도 구세주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불사영생의 자격을 갖춘 구세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진로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지금쯤은 완성의 시기이다. 내가 승리제단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양심이 요구하는 바른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 구세주의 눈으로 면밀히 살펴야 한다.\*

## 우담바라 꽃 계속 피고 있다



2000년대 초에 마스크에서 우담바라에 대해서 앞 다투며 특집으로 다루었던 적이 있다. 삼천년 만에 핀다는 우담바라 꽃이 불상 위 여가저기 도처에서 피어나니 상서로운 일이 있으려나 기대하면서 방송이 되었다. 왜 그런지 아는가? 바로 미륵부처님이 이세상에 출현하셨기 때문이다.

미륵부처님, 대한민국 승리제단에 오셨습니다

이 우담바라 꽃이 최근에도 피어나고 있다. 다음은 <꽃집 간판에 핀 신비의 꽃 '우담바라'>라는 제하의 광주일보 기사이다.

4월 광주시 동구 동명동 한 꽃집 간판에 불교에서 상서롭게 여기는 '우담바라'가 피었다. 확대된 사진 속 우담바라는 동전보다 작은 원을 그리며 무리지어 피어났다. 시민들은 “새해 호남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신기해 하며 이곳을 찾고 있다. 우담바라는 풀잡자리의 알로 알려져 있다. (광주일보, 2016. 1. 5.)

우담바라 꽃은 삼천 년 만에 핀다는 전설적인 꽃인데 석가이후 삼천 년이 지난 이때에 때 아닌 관심이 폭발하는 것은 미륵불이 이미 출현했기 때문이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 경축(慶祝) 아버지날 인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경배(敬拜)합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끈두박질을 하시면서 통곡을 하셨습니까. 당신 자식들이 죽어가 는 모습을 보시면, 죽어갈 때마다 통곡을 하시고, 그 하나님 입장은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아니면 얼마나 우시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기를 쓰신 것을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의 심정은 어느 누구도 당신의 지체처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던 '하나님 엄마'였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온 천하 마귀가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엄마와 자식 사이를 떼어 놓을 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 주는 엄마입니다. 시간시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마귀가 공격하지만 늘 이 영적엄마가 분신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날을 기해서 다 같이 새 출발할 것을 결의해야 되며, 엄마처럼, 하나님처럼, 똑같이 자유율법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엄마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 구도의 길

## 야고보의 자유율법

기독교인들이 모세의 율법, 즉 십계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으나 자유율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도할 때 “자유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자유율법이 뭐예요?”라고 반문하는 기독교인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자유율법은 예수의 사촌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알려진 야고보서 2장에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어기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며, 자유율법에 의해 심판 받을 줄 알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자유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범하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게 된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 자유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유율법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분은 전도관을 이끌었던 박태선 장로님이다. 박 장로님은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외부적으로 드러난 구체적 행위를 규율하는 율법이지만 자유율법은 마음이나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율법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다. 즉 도덕질을 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모세의 율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자유율법에는 걸리며, 이성(異性)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모세

의 율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자유율법에는 걸린다는 것이다. 즉 자유율법은 부정함의 생각이나 마음도 죄라는 것이다.

이렇게 눈길로나 입술로나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안 된다며 엄격한 율법을 박 장로님은 설교하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율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가르쳐 주지 못했다. 죄 하나만 지어도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죄가 어디서 나오는지,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못했다.

죄의 뿌리가 원죄인데 구세주 조희성님은 죄라는 것은 ‘나’라는 의식에서 모두 비롯된다는 것임을 깨닫고 철저한 연단과 투쟁을 통해 그 ‘나’를 완전히 죽여 없애버린 극기승자(克己勝者)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던 것이다. 죄의 ‘나’가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坐定)하시게 되니 조희성님은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헛값은 지옥이다. 죄인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자유율법을 100퍼센트 지켜야 한다. 자유율법은 죄 짓지 않는 법이다.\*

## 본부제단 4월 성적 발표, 5지역 7개월만에 다시 1등



심관왕을 달성한 5지역 신순이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 윤봉수 회장은 5월 3일(화) 구역장회의에

서는 본부제단 4월 활동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만년(?) 2등 5지역이 오랜만에 1등을 차지하였다. 2등의 한풀이를 토크하러는 듯, 지역 1등뿐만 아니라 구역 1.2등과 개인 1.2등을 씩씩히 하였다. 5지역의 1등에는 고군분투하며 계속 개인 1등을 놓치지 않는 신순이 지회장을 맡아주시는 5지역 식구들의 아름다운 협력이 있었다.

3지역 역시 든든한 지역 식구들의 지원으로 2등을 차지하였고, 4지역이 탄탄한 조직력으로 약진한 1지역을 아슬아슬하게 4위로 밀어내고 3등을 차지하였다. 안타깝게도 활동성적에서는 1지역이 4지역을 앞섰지만 구역장 회의 성적에서 4지역에 밀리는 바람에 4위로 밀려나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1지역 2구역이 구역 3등을 차지하였고, 역시 1지역의 김인숙 집사가 개인

3등을 차지하여 구역 3등과 개인 3등을 차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윤봉수 회장은 “1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다. 상을 받은 분들을 축하해주고, 경쟁을 통하여 이기려고 분발함으로써 신앙심도 더 커가는 것이므로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공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2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3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구역 1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 2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 3등: 2구역(구역장: 손경선)

- \*개인 1등: 신순이 권사
- 2등: 고선희 권사
- 3등: 김인숙 집사\*

##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안 죽는 종교입니다.



인생은 고택(苦海)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택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택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 예배시간안내 |                            |  |
|--------|----------------------------|--|
| 월-토요일  |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  |
|        |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  |
| 일요일    | 오후 1시                      |  |
| 위치     | 지하철 1호선 역곡 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  |

###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